

8 위기의 학생 자치, 원동력 찾으려면

‘위기’ 공감대 형성하고 플랫폼 혁신하고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 연재순서
- ① 학생자치가 걸어온 어제
 - ② 학생자치가 마주한 오늘
 - ③ 학생자치가 바라볼 내일

#.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학생 사이 기초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학생 자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학생 대표자들은 비대면 체제가 학생 사회의 위기를 표면화하였을 뿐, 진정한 의미의 학생 자치는 그 이전에도 찾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그 표면 위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학생 사회의 새로운 형태를 고민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치 기구의 대표자들과 함께 학생 자치의 미래를 탐색해 봅니다.

캠퍼스 안에는 한동안 만남이 없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전하듯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진행되는 많은 행사 속에서 이전과 같은 관계, 모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장 조서영(국어국문학 2018)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내 대부분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고, 운영을 맡으려는 구성원을 찾기도 어렵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캠퍼스 학생자치 긴급TF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0개 자치기구 중 30%가 차기 대표자 선출이 어렵다는 답을 전했습니다.

조 씨를 비롯한 일부 학생 대표자는 코로나19가 기존 학생 사회의 위기를 표면화시켰을 뿐, 학생 자치의



제시되는 해결책은 모두 비대면의 한계를 넘어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의견 수렴 기회를 찾는 것으로 모아진다. (사진=이지민 기자)

무대는 이미 줄어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과거 학생 조직의 영향력은 캠퍼스를 넘어 지역사회와 정치에도 닿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학생 자치 조직이 대학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등록금과 장학금 문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는 자리는 모두 학생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논의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에서도 학생 조직의 자리는 별도의 요구와 승인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학교와 교육환경개선안 논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학사운영 TF에 학생 대표 자리를 만

든 것은 하나의 진전입니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사운영 TF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학생들에게 어떻게 의견을 묻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현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이자, 과거 총학생회 일원으로 활동했던 이재경(한의학 2018) 씨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생 사회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줄 창구가 없는 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 같다”면서도, “자치 조직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취업 위주의 대학 환경, 임원과 구성원 간의 소통 부족도 또 다른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자치 기구가 왜 존재하는지, 본인이 학생 사회에서 어떤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자치 기구들이 기존에 하던 역할을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 온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같은 사업을 반복한다면 현재의 위기 역시 계속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축제 등 기존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는 자치 기구들의 시도가 학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무산되고 있는 것은 그 방

증일지도 모릅니다. 대표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모두 비대면이라는 한계를 넘어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의견 수렴 기회를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멸종위기의 학생자치, 그래도 길은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최인성(생물학 2016) 씨는 현 위기의 해결책으로 ‘위기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학생자치 기구 선출 방식 및 플랫폼의 혁신’, ‘효능감 향상을 통한 참여 유도’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학생회뿐만 아니라 작은 자치기구까지 현재의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등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대해 폭 권한을 부여하여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확대된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 자치의 효능감을 높여야 이전의 원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학자 신해우는 「대학에 있어서의 자치활동」이라는 글에서 학생 자치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손으로 조직하고 통제하고 운영하는 활동’이라든지 학생의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생활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체제가 장기화되고 학생 조직의 형태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학생 자치를 향한 질문은 여전히 이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하나둘 한 자리로 모이고 있을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치 기구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학생 사회의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및 자동발급기 제증명 발급 안내

학생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및 자동발급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제증명의 발급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바랍니다.

1.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 가. 교 직 원 : 재직,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나. 학 생 : 재학, 휴학, 성적, 졸업(예정), 수료, 재적, 장학(비)수혜 증명서 등

2. 인터넷 제증명 발급방법

- 가. 접속경로 : 인터넷 증명발급센터
 - 1) 교직원 : <http://khu.certpia.com> 2) 학생 : <http://kyunghee.certpia.com>
- 나. 로그인 방법(2가지 중 1택)
 - 1) 인포21 ID, PW 입력 2) 휴대폰 본인인증 + 사번(학번) 입력
 - ※ 인터넷 증명발급은 회원가입이 불필요 하므로, 로그인 후 즉시 출력가능

3. 자동발급기 제증명 발급방법

- 가. 자동발급기 설치장소 : 청운관 로비(2대), 청운관 1층 학생생활 지원존 내(1대)
- 나. 이용시간 : 오전 7시~오후 8시(주말에도 발급 가능)

다. 유의사항 : 학적부, 복학확인서, 취업추천서는 발급 불가하므로 학생지원센터 제증명으로 방문

4. 발급 수수료

- 가. 교 직 원 : 학내망 이용 - 무료(교내 IP 대역내 접속시)
외부망 이용 - 수수료 부과(1통당 1,000원, 추가 500원)
- 나. 학 생 : 재학생 1통 500원 / 졸업생 1통 1,000원 + (대행수수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 장학금(비)수혜 증명서는 무료)
- 다. 유의사항 : 교직원은 자동발급기 발급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증명발급센터 이용

5. 문의처 학생지원센터 02)961-9335~7

- ※ 제증명 발행시 개인정보 수정은 인포21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해당부서를 참고 바람
 - 교 원 : 교무처 교무팀 - 직 원 : 인사처
 - 학 부 생 : 교무처 학사지원팀 - 대 학 원 생 : 소속 대학원 행정실